

# 패러다임 변화에 의한 재료의 표현경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xpressive Trends of Materials according to the Paradigmatic Variation

김은주\* / Kim, Eun-Joo  
류호창\*\* / Lyu, Ho-Chang

### Abstract

In a modern society, as the architectural materials have become main subject of the interior design expression, their influence on architecture is becoming substantial. There are multiple ways of using architectural materials. The aesthetic value is greatly enhanced by the fact that the architectural materials can be used to create unrestricted and new expression. The modern time is uncertain and rapidly changing. In this era of chaos and diversity, the materialism is being superseded by idealism. Speedy exchange of information among the countries with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and materials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new expressions. Each new material that adds new value influences on the other art as well as the architecture. These characteristics of new expressions could be viewed as having close relationship with current idealism.

Therefore, the study on the expressive trend of architectural materials will provide better understanding and translation on expression of interior design. At this point, this study has a purpose in not only understanding architectural materials but also researching for the characteristics of expression on interior design with consideration of paradigmatic variation in modern times.

키워드 : 물성, 재료표현, 비물질성, 다원성, 환원성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현대에 들어서면서 건축 재료 자체가 디자인 표현의 주체적 요소로 됨에 따라 건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증대되고 있다. 재료의 사용방법은 다양화되고, 보다 자유롭고 새로운 표현 가능성은 많은 미적 가치를 지니게 된다.

현대는 불확정의 시대이며, 다원적인 시대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혼란과 다양성의 시대이며, 물질중심에서 정신위주로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으며, 국가간의 빠른 정보교환과 새로운 기술과 재료의 개발 등으로 제각기 새로운 의미를 지닌 많은 유형들이 건축 및 실내디자인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 분야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표현의 가능성은 더욱 증대된다. 이러한 표현특성은 시대정신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의 시대적 양상에 따른 재료의 표현경향을 고찰함은 향후 실내디자인의 표현특성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재료의 물성을 파악함과 동시에 현대의 다양한 패러다임 변화에 주목하면서, 이에 따라 실내디자인에서 나타나는 재료의 표현특성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재료에 관한 일반적 고찰을 시작으로 시대적 흐름에 따른 사고의 변화에 입각하여 표현된 재료의 다양한 표현경향을 종합해 보았다.

본 논문의 시대적 범위는 20세기 후반 C.I.A.M. 붕괴 이후 다차원적인 사고의 상관성을 띠게 되는 1960년대 이후의 현대 패러다임의 사고변화와 그에 따른 재료의 표현특성을 연구의 범위와 방법으로 설정하되, 이러한 흐름에 따라 재료의 표현특성이 두드러진 작품을 위주로 선정하였다.

\* 정회원,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실내환경디자인 전공  
\*\* 이사, 건국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부교수

## 2. 재료의 일반적 고찰

### 2.1. 물성의 개념

지구U상의 모든 물질은 나름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데, 자신의 존재를 재료적 성질을 통해 드러내어 보여주는 고유한 성질을 '물성(物性)'이라고 한다.

물질이 건축에 개입될 때 그것은 건축을 구성하는 실재적 물리적 요소로서의 재료라는 의미를 갖게 되며, 다시 그곳에 건축가의 의식과 개념이 개입되면서 재료는 그 고유한 속성인 물성으로 인식된다. 즉, 물질이라는 용어는 건축가에 의한 인식적 대상으로서의 의미이고, 재료는 이러한 인식을 통해 건축물에 구축되는 구현의 대상<sup>1)</sup>으로서 감각과 욕구가 유발되어지는 정신적인 과정과 같은 심리적인 영향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재료가 가지는 물성을 건축가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건축과 재료간의 관계에 의한 표현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재료가 가지는 물성인 것이다.

### 2.2. 재료 표현에 영향을 주는 요소

#### (1) 형태(Shape)

형태(Shape)는 눈에 의해 포착된 대상의 본질적 특징의 하나로, 위치와 방향을 제외한 사물의 공간적 변모를 가리킨다. 형태는 재료로서 구체화되며, 재료로 구체화된 형태는 실질적인 기능과 목적을 갖게 된다.

#### (2) 색채(Color)

재료의 표현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색채(Color)는 우리에게 심리적 혹은 생리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 (3) 질감(Texture)

질감(Texture)이란 재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표면 고유의 느낌이나 가공된 느낌이며, 촉각의 경험으로 얻어진 느낌은 시각을 통하여 표면의 시각적인 특징을 인식하게 된다.

#### (4) 문양(Pattern)

문양(Pattern)이란 실내재료의 무늬로써 프린트되거나 짜 넣은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어떤 단위화된 재료가 조합될 때 저절로 생기는 것이다. 선, 형태, 공간, 빛과 색채의 사용으로 만들어지는 패턴은 보통 2차원적이거나 3차원적인 장식의 질서를 부여하는 배열이다.

#### (5) 기타

이 밖에도 방향, 명암, 크기, 비례도 재료의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 3.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표현양상

### 3.1. 패러다임의 개념

패러다임은 집단적 차원에서 공통된 '의견일치'라는 의미를 지니며, 그 집단 구성원의 사고성향과 건축운동의 특성을 지시한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건축가 자신의 사고의 성향과 이에 따른 모형 선택에 영향을 주어 건축적 표현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패러다임을 건축적 사고의 틀을 형성하는 사고체제로 이해할 때, 건축가 집단이 어떠한 개념을 형성하고 발전시켜 구체적인 표현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 3.2. 현대 실내건축의 패러다임 양상

#### (1) 복수-탈 확정적 양상

1960년대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의 건축적 개념은 근대의 단순, 추상적인 순수성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파악된다.

이중기호화(Double coding), 즉 다원론적 기호를 가지는 의사소통을 통해 새로운 창조를 해나간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로 접어들면서 전통과 규범이 해체되자 일정한 규범에 의해 건축가가 활동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대응하여 자의적인 해석과 각색을 하는 매너리즘적 경향이나 이질적인 요소들을 혼합시킴으로서 다양한 양식이 존재하게 되고, 절충적인 시도가 현대건축에 나타난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공존하며, 시간과 공간의 절대성에 대해 기대하지 않음을 뜻한다.<sup>2)</sup> 이들의 미학은 주로 시대적 건축양식의 혼재된 양상을 과거의 소재로 대체하거나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대중적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해 나간다. 이후 해체로 대표되는 네오모던적 경향은 색다른 변형과 일탈적 요소를 나타내면서, 건축적인 혼재와 왜곡을 통해 자본주의의 모든 패락 시설들을 집합시킨 우연적 형상들이 콜라주되어 존재한다. 그곳에는 가치에 대한 단일개념이 아닌 상대적인 개념이 존재한다.

#### (2) 구조-재료 지향

포스트모더니즘이 고전적 형태어휘에 치중하여 건축의 공학적이고 사회학적인 측면을 경시하였다면, 레이트모더니즘은 현대후기의 테크놀러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과학적, 공학적 실험태도에서 시작하였다. 과학과 테크놀러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는 하이테크 건축은 기술적 형태의 발명을 통해서 '건축과정의 미학'이 드러나는 건축에 접근하고 있다. 하이테크 건축의 특징은 '기능적이고, 융통성 있는 평면, 노출된 구조, 삽입형 설비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기술 지상주의를 상징함으로써 투명성, 계층성, 운동성 등의 미적 표현 요소와 지적인 명료성이 나타난다.<sup>3)</sup> 재료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특

1) 박영옥, 건축행위를 통한 물성의 발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논, 1996, p.14

2) 손남희, 모더니즘 이후 현대 건축 디자인의 패러다임적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논, 1991, p.19

3) 정진오, 패러다임에 의한 한국현대건축의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

정은 투명성, 금속성, 경량성을 들 수 있으며, 조형적인 측면에서는 형태에 관련된 것으로 구조체와 설비의 노출성, 기술의 상징성을 들 수 있겠고, 색채에 관련된 것으로는 밝고 단조로운 색채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공간의 등질성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sup>4)</sup> 기술을 표현하는 외형표현은 기하학적인 단순성이 확장되어 재료를 강조하거나 재료의 물질감을 제거, 왜곡하거나 유리와 같은 재료의 극단적인 매끄러움을 이용하고 있다.<sup>5)</sup>

### (3) 본질에 대한 극단적 추구

20세기 말 건축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깊은 혼란상태로 빠져들었다고 할 수 있다. 현대는 불확실성의 사상(Ideology of Uncertainty)속에 둘러 싸여져 있어, 새로운 세기말의 상황에서 원점에서의 회귀는 불변성의 본질을 통하여 불확실성의 미래를 명확하게 통찰 할 수 있는 선견(先見)을 제시 할 수 있다.

근대의 단순성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단순성'의 표현<sup>6)</sup>인 미니멀리즘은 이처럼 다원화 경향에 대하여 어떤 성향에도 편입하지 않는 중성적인 표정을 갖는 중재자로, 또한 물질세계의 모든 제약에서 벗어나 현대사회에 대한 반향으로 다시 회귀하려는 경향을 통해 본래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비움의 미학을 추구한다. 이는 극도의 절제와 엄격함을 추구하며 건축이 현존하는 세계상의 본질을 찾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니멀리즘은 단순성, 동어 반복적인 성격, 물체성, 전체성, 강력한 단일성 등의 환원적 특성으로 인하여 '절제의 미학'을 지닌다. 이것의 표현과정은 축소된 의미가 아닌 환원적 미학 속에서 무한히 확장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고도의 기술적인 정교함을 요구하고, 현대의 발달된 기술과 융합하여 절제된 감각의 무한한 정신적 표현의 가능성을 확장시키고 있다.

<표 1> 현대 실내건축의 패러다임에 의한 표현

패러다임	실내건축의 표현방법	표현경향
복수-탈 확정적 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자공존의 절충성</li> <li>· 은유적· 대중적 커뮤니케이션 전달</li> <li>· 단일개념의 부재(가치의 상대론적 인정)</li> <li>· 유연적 형태의 플라즈마적 표현</li> </ul>	▶ 다원성 표현
구조-재료 지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적 가능성의 미적차원에서 구체화</li> <li>· 과학과 테크놀러지의 가능성을 탐구</li> <li>· 투명성, 금속성, 경량성, 노출성, 상징성, 밝고 단조로운 색채</li> </ul>	▶ 비물질성 표현
극단적 본질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극도의 절제와 엄격함의 추구</li> <li>· 최소성의 표현</li> <li>· 환원적 특성에 의한 순수함 표현</li> </ul>	▶ 환원성 표현

대 석논, 1998, p.46

4) 남경숙·이창노, 실내디자인에서의 하이테크디자인의 표현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6호, 2001.3, p.20

5) 이윤봉, 현대건축과 현대회화의 표현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건국대 석론, 1996, p.61

6) 김철균, 현대건축의 미니멀적 표현양상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8권 제 2호 9810, p.353

## 4. 현대 실내건축 재료의 표현경향

### 4.1. 다원성

포스트모던 이후의 혼용과 인용, 혹은 기억, 은유, 상징 등의 다양한 접근은 90년대에 들어서는 디자인의 움직임들이 더욱 세분화되어, 전문화된 다원주의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디자인은 행위의 과정에서 보다 사고의 과정에서 접근되고, 이해되어야 하는 시대적 요청에 직면하게 되었다.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문화적 가치가 상대화되고 다원화되기 때문에, 어떠한 단일한 가치도 지배적이거나 우월한 것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모든 가치는 단편화된다. 또한 현대는 문화적으로 혼성의 상태로 되어가고, 이것은 현대 실내건축에 다원화와 복잡성에 대한 개념과 표현에 관계한다. 특히 개인적인 미적 자의식이 증대될 때 이러한 경향은 확대된다. 디자인 과정이 점차적으로 자의성에 의해 지배되고 디자인 과정 역시 점차 변화하여 즉흥적, 또는 즉각적으로 플라즈마 방식을 사용하게 되므로 다원적인 양상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다.

### 4.2. 비물질성

첨단 기술과 정보산업의 발달은 공간에 새로운 경향을 초래하였다. 건물 외피를 통해 가벼움과 경쾌함을 추구함에 따라 빛을 공간에 유입시켜 공간적 전망을 통합하고,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이용하여 실내와 이미지를 통합시켜 실재와 비실재간의 구분이 모호한 비물질화된 특성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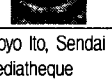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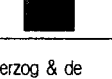

투명한 재료의 특성을 활용한 디자인은 단순한 이미지를 통해 현대적인 감각을 표현하고, 빛의 효과로 투명한 공간은 어떤 의식을 부여하여 기능적, 미학적, 심리적 요구를 수용하면서 은유적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또한 경량감을 주는 재료는 건물이 주는 중량감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 4.3. 환원성

혼돈과 모순으로 가득찬 현대사회의 복잡한 양상에 반하여 혼란으로부터 자유와 평온함을 찾고자 본질로의 환원하고자 하는 경향은 최소화의 미학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 이것은 의도적인 장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백의 미학을 통해 예술관을 확장시켜 가능성을 증대시킴으로서 무한의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다. 본질로 회귀하려는 이러한 경향은 단순성과 순수주의의 극단적 실행을 통해 건축 재료의 환원적 성격을 극한대까지 실현한다.

1990년대 들어서부터는 재료의 물성, 질감, 표면의 이미지가 등 기하학적 질서와 감각적인 지각적 차원을 의도하고 있으며, 건물의 표피에 대한 새로운 탐구로서 하이테크 건축 이후 발전된 기계적인 것이 자연적인 것과 공존을 추구하면서 재료의 시각적인 차원을 넘어 촉각적인 영역으로 확장되어 더욱 발전된 단순성을 실현시키고 있다.

<표 2> 종합사례 분석표

경향		특성 및 효과	작품사례	
다원성	플라주적	· 재료의 중들로 이질적 면의 특성 강조 · 건물의 조형적인 특성 부각	· Frank O. Gehry, Gehry House 	· Frank O. Gehry, Winton Guest House 
		· 다양한 변화와 공간의 깊이감 · 상징을 통한 풍부한 표현	· Zaha M. Hadid, MonSoon Restaurant 	· Hans Hollein, Austrian Travel Agency Main Office 
	키치적	· 새로운 감각제시 · 시각적 풍부함	· Alessandro Mendini, Swatch Store 	· Fabio Novembre, Anna Molinari Blumarine Store, Blumarine Store 
		· 기존의 관습적 체계의 파괴 · 추상적 꿈, 추억, 환상 유발	· Fabio Novembre, SHU Cafe 	· Ito Toyo, Normad Restaurant 
비물질성	투명성	· 연속성, 생동감, 개방감 부여 · 모호, 환영적 이미지	· Emilio Ambasz, Financial Guaranty Insurance Company 	· Dominique Perrault, National Library 
		· 부유감의 표현 · 구속에서 자유	· Bernard Tschumi, Glass Video Gallery 	· Shiro Kuramata, Lessey Miyake 
	경량성	· 가벼움과 경쾌함 · 주변 환경으로 소멸	· Jean Nouvel, Cartier Foundation 	· Jean Nouvel, Galleries Lafayette 
		· 물질감에서 탈피 · 구조노출로 폐쇄적 공간 탈출	· Jean Nouvel, Arab Institute 	· Toyo Ito, Sendai Mediatheque 
환원성	재료본성 추구	· 물성의 직접적 노출로 근원성 표현 · 독립적인 완결 상태	· Gion & Guyer, Kirchner Museum 	· Herzog & de Meuron, Pfaffenholz Sports Complex 
		· 새로운 물질성 시도로 다른 의미 부여 · 물질성의 초월	· Herzog & de Meuron, Ricola Storage Building - 콘크리트 벽면 	· Herzog & de Meuron, Ricola Storage Building - 식물모티브 실크스크린 
	면의 단순성	· 색채의 순수성	· Campo Baeza, Turegano House 	· Campo Baeza, Gaspar House 
· 표면의 솔직성		· 허상성 배제와 물성의 구체화 · 건축적 개념의 명료화, 질서부여	· John Pawson, Calvin Klein 	· Ando Tadao, Naoshima, contemporary art museum 

## 5. 결론

현대의 패러다임 양상은 다양한 양상으로 건축뿐만 아니라, 타 장르의 모든 예술분야에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현대 건축적 사고는 복수-탈 확정적 양상, 구조-재료 지향, 극단적 본질추구라는 다양한 양상이 혼재되고 있다고 분석된다. 이런 다양성의 시대에 있어 실내디자인의 표현 문제는 더욱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건축재료 자체가 디자인 표현에 주체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고찰된 현대 실내건축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실내공간에서의 재료의 표현 경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다원적 경향으로 재료는 플라주와 키치적 특성을 통해 다양한 변화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비물질적 경향으로, 투명성과 경량성을 통해 공간의 모호함과 개방감, 물질감의 탈피 등의 효과를 표현하려 한다. 셋째, 환원적 경향으로 재료의 본질로 회귀하고자 단순성과 순수성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현대 건축의 다양한 사고체계를 기초로 재료의 표현 경향을 고찰함은 향후 나타날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실내디자인의 재료적 표현 경향을 예측하고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 참고문헌

1. 박영옥, 건축행위를 통한 물성의 발현에 관한연구, 서울대 석논, 1996
2. 박종백, 컴퓨터를 이용한 건축 재료의 질감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1994
3. 정진오, 패러다임에 의한 한국현대건축의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논, 1998
4. 이윤봉, 현대건축과 현대회화의 표현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건국대 석논, 1996
5. 손남희, 모더니즘 이후 현대 건축 디자인의 패러다임적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논, 1991
6. 김철균, 현대건축의 미니멀적 표현양상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논, 1999
7. 이준섭, 20세기 후기 실내디자인의 표현적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논, 1998
8. 박경자, 현대건축에 나타난 플라주적 표현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논, 1995
9. 김은경, 실내디자인의 플라주 기법과 표현요소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논, 1998
10. 전미화, 실내디자인에서 표현된 키치 유형연구, 국민대 석논, 2001
11. 노미경, 현대 실내 디자인에 있어서 키치의 특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논, 1997
13. 서지원, 패션전문점의 미니멀적 실내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논, 2000.
14. 남경숙·이창노, 실내디자인에서의 하이테크디자인의 표현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6호, 2001.3
15. 배준현·전명현, 현대건축의 절충적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7호, 1998.12
16. 김경재, 근대건축 이후 건축적 빛의 의미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5호, 2000.12
17. 이종협·배준현, 현대건축의 표현에 있어서 'Lightness' 에 관한 연구, 동양대학교 논문집 6호, 2000.2